기획예산처	보도자료

보도시점	2026. 1. 14.(수) 15:00	배포	2026. 1. 14.(수) 14:00

주요국들은 성장산업과 국방분야 재정투자 확대 중

- 기획처, 주요국 예산 동향 비교분석 최초 제공 → 매월 시리즈로 소개 계획
- 미·일·독·중 등 주요국은 AI, 성장산업, 사회인프라 등 정부투자 강화
  * (미) 5,0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진행 (일) AI·반도체'26년 예산안 전년대비 272%↑
    (독) 사회인프라'26년 예산 전년대비 10%↑ (중) R&D 분야'25년 예산 전년대비 10%↑
- 러우전쟁,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 인상
  * (미) 예산안'26년 전년대비 13.4%↑ (일) 예산안'26년 전년대비 3.6%↑
    (독) 예산'26년 전년대비 32%↑ (중) 예산'25년 전년대비 7.2%↑

□ 최근 주요국들은 팬데믹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보건지출은 정상화하는 반면, **AI 등 첨단산업분야, 사회인프라 투자, 국방예산 등에 대한 투자**가 **증가**하고 있다.

【미국】

□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**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**(스타게이트 프로젝트*)하는 한편 26FY 예산안**(Skinny Budget)에서 **국방지출**이 전년대비 13.4% 증가해 **안보분야**에도 집중하는 **재정기조**를 확인할 수 있다.

*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美 정부와 OpenAI, 소프트뱅크 그룹 등 민간 기업이 합작하여 5년간 5,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

** 정부의 재정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예산안이며, 26FY(10.1일~다음해 9.30일) 본예산은 의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아 현재 잠정예산안 운용 중

○ **대규모 감세**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 **지출 구조**를 **AI·양자 기술·우주·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**(다양·형평·포용(Diversity Equity Inclusion; DEI) 관련 프로그램, 환경 관련 프로그램은 축소)하며 **미래 성장동력 확보**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.

【일본】

□ 일본은 '26FY*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122.2조엔으로 편성하였다. **AI·반도체 예산**이 전년대비 **272% 대폭 증가**(1.2조엔)했고 **국방예산**도 전년대비 3.6% **증가**(8.9조엔)하며, '25년에 이어 **증액 기조**가 유지되고 있다.

* 일본 회계연도(Fiscal Year)는 4.1일~다음해 3.31일로 아직 26FY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음

○ **'책임있는 적극재정**(責任ある積極財政)'을 기조로 **AI·반도체 등 17대 전략 분야*를 중심**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.

* **AI·반도체, 조선, 정보통신, 항공·우주, 자원·에너지·GX, 디지털**, 국방산업, 해양, 콘텐츠, 바이오, 푸드테크, 핵융합, 방재·국토정비, 첨단의료, 항만·물류, 중요광물 양자

【독일】

□ 독일은 '26년 연방예산을 5,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.3% 증가하였다. **사회 인프라 투자**는 전년대비 **10% 증가**(1,267억 유로)하였고 **국방예산**은 전년대비 **32% 대폭 증가***(827억 유로)하였다.

* 독일 회계연도(FY)는 1.1일~12.31일임

○ 5,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특별기금 신설('25.3월)로 교통·주택·보건 등 분야에 **경기 활성화**를 위한 **투자**를 **확충**하는 것이 **특징적**이다. 아울러 '29년까지 **국방지출**을 **GDP 대비 3.5%**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**재정조치***도 **병행**하고 있다.('25년 기준 2.4%)

* 최근 독일은 GDP의 1%를 초과하는 국방지출은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도록 재정준칙 완화('25.3월)

【중국】

□ 중국은 '25년 중앙일반공공예산*을 14.7조 위안으로 **전년대비 4.5% 증가**하였다. **기초연구, 인재양성 등 R&D 예산**이 **전년대비 10% 증가**(0.4조 위안), **국방예산**이 전년대비 **7.2% 증가**(1.8조 위안)하였다.

* 중국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예산
** 중국 회계연도(FY)는 1.1일~12.31일임

○ **'25년 경제성장률 5% 달성**을 **목표**로 **재정적자 비율을 △4%**(기존 △3%)**로 완화**했으며, 설비교체·소비촉진 등 **내수 활성화**와 함께 **AI·양자기술** 등 **첨단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.

○ 한편 '26년 중앙일반공공예산은 전국인민대표대회('26.3월)에 확정·공개 예정이나, 中 재정부는 **내수진작, 성장동력 육성 등 확장재정 기조**를 '26년도에도 **이어나갈 계획**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.('25.12월)

【우리나라】

□ 우리나라의 '26년 예산은 전년대비 **8.1% 증가**(727.9조원, 본예산 기준)하였다. **R&D**(35.5조원, 19.9%↑), **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**(31.8조원, 12.7%↑) 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. **국방분야 지출**은 **7.5% 증가**(65.9조원)해 총지출 증가율인 8.1%에는 미치지 못하였다.

○ **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**을 위해 **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**, **신산업·R&D 혁신**, **에너지 전환·탄소중립** 등에 적극 투자하였고, 향후에도 성장을 통한 **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**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.

◇ 기획예산처는 각 국의 **예산안 발표, 재정분야 국제기구 보고서, 재정 통계** 등을 토대로 **해외재정동향**을 매 월 시리즈로 **소개**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재정혁신정책관 재정기획분석과	책임자	팀장(직대)	김남희 (044-214-1852)
		담당자	사무관	소재찬 (Altria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